

근로장려금·일자리안정자금 확대...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 폐업 급감 속 정부 지원대책 내용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내놓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이 과연 역대 최악의 위기를 겪고 있는 광주·전남지역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광주·전남 영업이익 낮고
숙박업 등 일자리 감소 심각

매출 3000만원미만 부가세 면제
소득 6000만원이하 월세액 공제

(13.2%)이나 줄었고,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음식점 종업원 등 서비스·판매종사자 수도 17만명으로 같은 기간 7000명 감소하는 등 역대 최악의 일자리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 지원 대책은=우선 근로장려금(EITC) 소득요건과 재산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로 인해 자영업 지원 대상자는 57만가구에서 115만가구로 늘어나고, 지원규모도 4000억원에서 1조 3000억원으로 3배로 확대될 전망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급감에 일자리 감소도 심각=인건비 부담과 경기침체로 자영업자가 급감하면서 지역 내 일자리 감소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 광주의 도소매·음식·숙박업 취업자 수는 지난달 14만 9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3000명

하기로 했다. 사업장 규모별 최대 지원율은 1~4인 사업장 90%, 5~9인 사업장 80% 수준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 건강보험 신규 가입자 보험료를 50% 경감해주고 1인 자영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줄여주는 동시에 고용보험료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화상 등 위험이 있는 음식점과 같은 서비스 업종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도 추가한다.

자영업자들이 요구해왔던 카드수수료 부담도 완화된다.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에 대한 카드 수수료율을 3.0%에서 매출규모에 따라 1.8~2.3%로 우대한다. PG사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1.5%→1.0%)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매출 10억원 이하 사업자 대상 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를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리고 우대공제율(1.3%) 기간도 2020년까지 연장한다.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을 현행 연매출 24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무주택자 인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성실사업자 등에 대해 주택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해주는 방안도 담았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소상공인 대상 지역신보 보증규모를 올해 18조5000억원에서 내년 20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지역신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

일시: 2018. 8. 22(수) 07:30

장소: 국회의원회관 306호 정책위원회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례보증(1조원) 운용기간도 내년까지 연장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공정거래를 돕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 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 기준 실태조사를 거쳐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도 강화된다.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한 방안도 추진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추천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폭염에 지친 날, 지나간 시절 아련한 풍속처럼...



김은영의 '그림 생각'

(235) 그 여름의 끝

살아오면서 막북을 기다렸던 것은 올해가 처음인 것 같다. 막북이 지나면 폭염의 기세가 한풀 꺾이고 더위가 완전히 지났다고 여겨도 될 만큼 조속으로 공기가 달라지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 여름의 끝'을 대략 막북 즈음으로 금과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더해서 말이다.

막북 즈음 복달임으로는 뜨거운 보양식보다는 시원한 수박이 제격이라. 올해는 극심한 무더위에 수박작황이 좋지 않아 수박 값도 올라 금수박이라 하지만 시원한 수박 한 입에 저만치 더위가 물러났던 기억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김호석작가(1957~)의 '수박씨 벨고 싶은 날'(1997년 작)은 어린 시절 온 가족이 모여 신문지 깔고 수박 한 통을 썰어 먹었던 기억이 떠올라지는 작품이다. 요즘은 수박을 큐브처럼 예쁘게 깎아서 하거나 스틱으로 잘라서 살이와 노무라입김해파리 등이 출현하고, 아열대성·유독성 해파리와 적조생물의 출현도 잦아지고 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김호석 작 '수박씨 벨고 싶은 날'

해서 먹었다. 온 가족이 용기종기 모양의 수박 먹는 장면도 이제는 어느덧 지나간 시절의 풍속처럼 아련하게 느껴진다.

김호석작가는 역사화, 역사인물화, 농촌풍경화, 가족화, 동물화 등을 통해 우리 시대의 정신과 삶의 모습을 다양하게 형상화하고 있는데 특히 가족화 시리즈는 보는 이에게 공감과 웃음을 안겨준다. 아기의 단장, 딸의 귀지를 시원하게 파주는 엄마, 엄마의 새치 머리를 뽑아주는 아들, 미운 일곱살의 개구진 아이모습 등 그대로 멈추었으면 좋을 것 같은 가족의 소소한 일상과 순간을 인간적이고 따뜻한 시선으로 담은 그림들을 그렸다. 폭염에 지친 날 슬며시 그의 그림을 꺼내보게 되는 것도 그래서인지 모른다.

〈광주비엔날레정책실장·미술사박사〉

가축 91만마리·어류 58만마리 피해...영광 참조기 급감

'슈퍼 폭염' 시대

〈3〉전남 농어민 '삼중고'

농민들은 병해·폭염·태풍, 어민들은 고수온·해파리·태풍의 삼중고에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올 여름 폭염은 최악이었다. 6월2일 시작된 폭염은 누적일수 48일을 기록했다. 지난달 11일 이후에는 42일 연속 35도를 웃돌았다. 전남해역 고수온도 보름째 이어졌다.

태풍 '솔릭'이 달궈진 논밭과 바다를 어느정도 식혀줄 것으로 보이지만, 강풍과 폭우의 동반이 예고되면서 또 다른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축 91만마리·농작물 414ha 피해=지난 21일 현재 폭염은 전남지역 312명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4389명의 열열질환자를 발생시켰고, 이 가운데 48명이 목숨을

어민 고수온·해파리·태풍
농민 병해·폭염·태풍 시름
한반도 수온 48년새 1.8도 ↑
아열대 어종 등 출현 잦아

없었다. 생활용수 부족으로 섬주민들은 식수 공급을 요청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이날도 폭염은 꺾이지 않았다. 함평·광양·여수 등이 35~36도를 웃돌면서 이날 하루 동안 가축 2만마리가 폐사했다. 누적 피해 규모는 527농가 91만5000마리, 피해액은 29억9900만원으로 집계됐다.

농작물 피해는 이날 26ha가 추가돼 17개 시·군에서 414.2ha로 조사됐다. 강한 햇볕에 의한 데임피해 등이 많았다. 과수가 184.7ha(단감 99.4ha, 사과 40.2ha, 아로니아 16.5ha 등)로 피해 규모가 가장 컸고, 이어 밭작물 109.3ha(고구마 49.9ha, 콩 45.6ha, 옥수수 12.8ha 등), 특용작물

62.3ha(인삼 53.8ha 등), 벼 34ha, 채소 23.9ha(고추 13.2ha, 수박 8.5ha 등) 등이었다.

◇영광 참조기·울릉도 오징어 옛말= 전남도와 국립수산물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해역 표층수온은 1968년 평균 16.1도에서 2000년 16.9도, 2010년 17.1도, 2016년 17.9도로 48년 사이에 1.8도 치솟았다. 전남해역인 남해는 같은 기간 17.9도에서 19도, 18.8도, 19.6도로 올라 48년새 1.7도가 상승했다. 서해는 1.5도, 동해는 2.3도 올랐다.

올해는 장기간 폭염으로 바다수온이 더 올라갔다. 지난 21일 현재 득랑만과 해남·영광, 고흥·여수 해역에는 지난 6일 발효된 고수온 경보가 15일째 이어지면서 양식 어가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전남지역 양식어가 고수온 피해는 20여가에서 돌돔·넙치·조피볼락 등 58만7000마리 10억3300만원에 달했다.

이상기후와 한반도 주변 해역의 표층수온 변화 등으로 인해 영양염류, 먹이생물

등 여장환경이 변화하면서 우리나라 연근해 해역의 주요 어종 어획되도가 크게 바뀌고 있다. 1990년 이후 연근해 해역에서는 고등어·멸치·살오징어 등 난류성 어종이 증가하고, 명태·꽂치·도루묵 등 한류성 어종은 감소했다.

해역권별로 어종 어획량의 변화가 컸다. 영광 참조기, 울릉도 오징어는 옛말이었다.

서해권에서는 1970년 400t에 그쳤던 멸치 어획량이 2017년 4만7874t으로 무려 1만1869% 폭증했다. 살오징어도 152t에서 2650t으로 1643% 증가했다. 반면 갈치(3만6639t→2094t), 참조기(1만1526t→1076t) 어획은 급감했다. 남해권에서는 살오징어·고등어·멸치·갈치 등의 어획이 늘고, 참조기 잡이는 소폭 감소했다.

특히 열대성 생물종인 전복가두리망 산호류와 노무라입김해파리 등이 출현하고, 아열대성·유독성 해파리와 적조생물의 출현도 잦아지고 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2018년 무안공항 직항 출발 이제 편리하게 가까운 무안공항에서 조이투어와 함께 하세요! 푸~우~욱~

일본 기타큐슈, 오사카, 러시아, 세부, 북해도, 다낭, 방콕, 대만

가까운 무안에서 일본 기타큐슈 온천여행

5월 27일 이후 [화(4일), 금(3일), 일(3일)] 정기편 확정

오후 출발(화, 금, 일) 무안(18:00) - 기타큐슈(19:10) / 기타큐슈(19:40) - 무안(20:50)

- 정기편 확정 기간 한정 특가(6/5~7/20) -

- 기타큐슈 에어텔 3일 299,000원
- 기타큐슈, 삿부, 유후인 3일 [실속] 399,000원~ / [폭격] 499,000원~
- 기타큐슈, 삿부, 유후인 4일 [실속] 559,000원~ / [폭격] 599,000원~
- 기타큐슈 아마구치 3일 [폭격] 549,000원~ ※ 불포함사항: 무안공항 승수 및 기사/가이드 경비

무안 ↔ 오사카 정기편 제주항공으로 떠나는 나만의 자유여행

[월, 목(3박4일) / 수, 금(2박3일)] • 세미패키지 실속, 무안 출발/오전출발 •

- 오사카, 나라, 교토 실속(세미더블) 699,000원~
- 오사카, 와카야마, 교토, 나라 4일 949,000원~

무안 ↔ 토토리(요나고) 직항 전세기

7월 27일 부터(총5회)[금, 일(2박3일) / 화(3박4일)]

- 2박3일 699,000원(ALL 포함) • 3박4일 799,000원(ALL 포함)
- 추석 연휴 스케줄(9/22, 23, 24, 25~) 2박3일 998,000원(ALL 포함)

휴일 연휴 가질, 덴마크 함께~ 무안 ↔ 마쓰모토(나가노 북알프스) 직항 전세기

오오마치 & 알펜루트 & 마쓰모토 관광

9월 23일 부터(금, 일(2박3일) / 화(3박4일))

- 2박3일 1,048,000원~ • 3박4일 1,198,000원~

무안 ↔ 북해도 전세기 취항!! 7/18부터 ~ 8/21까지 총 19회

7월 18, 21, 24, 25, 27, 28, 30, 31 **8월** 2, 3, 5, 6, 8, 9, 11, 12, 14, 17

[폭격] 준특급+특급 1,290,000원 [고폭격] 특급 1,450,000원
[골프] 특급 1,790,000원 ※ 국경수기 요금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무안 ↔ 블라디/하바롭 전세기 취항!! 7/11부터 ~ 8/16까지 총 10회

[알뜰] 3성급 1,090,000원~ [실속] 5성급+3성급 1,190,000원~
[폭격] 5성급 1,350,000원~

무안 ↔ 세부 직항 전세기 [팬퍼시픽 연합]

6월 30일 출발 부터(수(3박4일) / 토(4박5일))

- 세부 정통 패키지 (3박4일) 599,000원~ / (4박5일) 649,000원~

• 팬퍼시픽항공 왕복항공권 - 음료 서비스 / 기내 담요 서비스 • 일급 / 준특급 / 특급 리츠로 3박(2인실 기준), 1억원 여행보험
• 특식 2회, 리츠로식 3회, 코코넛 오일(오 드라이프 망고) & 코코넛 비누 1SET(제공) • 필리핀 현지 공항세(700페소/1인당) 포함
• 호텔(다이빙 무료강습, 라우라비 디스카버리투어, 민속공연 관람, 마사지)
• 시내관광(아벨란의 십자가, 산페드로요새 또는 마탄성당, 마탄수리안 등)
• \$80 상당의 아일랜드 호텔투어(세부도 중식) 포함 ※ 출발 날짜별로 요금 및 포함사항과 불포함사항이 다르니 문의 바랍니다.

무안 ↔ 대만 정기편(제주항공) 7월 27일 부터(일, 월 출발)

- 대만, 화롄, 지우펀, 야류, 서문정 3박4일 799,000원~
- 대만, 서문정, 지우펀, 야류 2박3일 629,000원~

광주 ↔ 제주도 • 2박3일(주중) 249,000원~, 2박3일(주말) 324,000원~

무안 ↔ 다낭 직항 전세기

5월 18일(금) 이후 [화(3박4일), 금(3박5일)] 푸우욱~

화 출발 무안(08:05) - 다낭(10:40) / 다낭(14:40) - 무안(20:30)
금 출발 무안(21:35) - 다낭(00:10) / 다낭(01:05) - 무안(06:55)

VN 베트남 국영항공(스카이팀) 차별화된 기내 서비스
A-321-200(비즈니스 13석, 이코노미 161석)
기내식, 음료, 맥주, 기내담요, 배개, 비디오 상영

[골 드] 다낭 · 후에 · 호이안 4일 599,000원~
[골 드] 다낭 · 후에 · 호이안 5일 769,000원~
[프리미엄] 다낭 · 후에 · 호이안 4일 799,000원~
[프리미엄] 다낭 · 후에 · 호이안 5일 969,000원~

무안 ↔ 방콕 · 파타야 정기편(제주항공)

5월 2일 부터(수, 목(3박5일) / 토, 일(4박6일))

- [준특급] 649,000원~ • [특급] 699,000원~

남만이 넘치는 **지중해 크루즈 10일**
(이탈리아, 베니스, 크로아티아, 그리스)
◆ 광주 출/도착, ALL포함 4,600,000원

※모든 여행 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 포함사항이 다르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양국정부인허가조건 ※ 운항스케줄이 항공사 및 천재지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출발 날짜와 인원 수에 따라 상품 가격이 다르니 홈페이지 및 전화상담을 통해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기획여행 보증보험 가입 업체 등록번호: 제등다2003-1호

◆ 공휴조건: 여행기간 1인 기준, 여행지별 기내(여행비용) 1억원, 국내상품 5천만원, 관광진흥법(기금), 관광 및 무부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교통편: 항공편 선박, 전용버스 / 전 지역 ◆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보험 가입 업체 ◆ 예약시 계약서(주소, 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경비인원: 기사/가이드 명사, 선택관광, 각종 비자(비행) 별도 ◆ 최소 출발인원: 상황에 따라 다름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